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들어 본 추석 민심

“쌀값 폭락 대책 없나” 농민들 한숨만..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민심은 어느해보다 싸늘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 생활의 궁핍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특히 농도인 전남에서는 쌀값 대책을 호소하고 채소 흥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연휴 기간 동안 광주 광산의 재래시장 3곳을 방문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민생과 서민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SSM 관련 법이나 4대강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전남대회와 관련, “이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지지해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대회 당권주자인 박주선 의원은 “물폭탄, 물가폭탄에

서민대책·4대강 사업 불만 팽배 “야당 역할 제대로 하라” 주문도

풍년가는거녕 절망가만 울려 퍼진 ‘농민의 추석’이었다”며 “민심은 살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민경제 위축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했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농민들은 소처럼 일해서 풍년농사를 일궈냈는데 쌀값은 폭락이라며 절망감에 빠져있었다”며 “북한에 쌀을 보내 북한 동포와 농촌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시간만 보내느냐는 분노가 팽배했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선출된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쌀값대책을 내놨지만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비롯 농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더욱이 쌀 대북지원 5000톤에 대해서는 쌀값 정상화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남북 관계 회복도 힘들게 한 이상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잡은 비로 채소와 과일 생산이 저조하고 특히 8월에 씨를 못뿌려 배추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서민 및 노인 지원은 줄어드는데 4대강 예산은 늘어만 간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서민을 외치고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생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혁신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라는 고언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 여수시장과 있던 시도의원의 구속이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3박4일간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탐방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어느 때보다 서민생활이 고당해보였고 민주당이 서민생활을 보듬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이 기간동안 박상천(고흥보성), 주승용(여수), 우윤근(광양), 이윤석(무안신안) 등과 함께 재래시장 및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해복구 현장 찾은 여야 지도부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지도부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 수해복구현장을 방문, 주민들을 돕고 위로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지도부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 수해복구현장을 방문, 주민들을 돕고 위로했다.

/\*연합뉴스

청문회·국감·민주당 전대..

정치권 세력 재편 본격화

추석 이후 정치권이 세력 재편의 계기를 맞을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이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할 전망이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의 진용을 드러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는 오는 29~30일로 예정된 김황식 총리후보 인사청문회를 통해 맞대결을 펼친다.

청문회가 끝나면 다음달 4~23일 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 등에 맹목적으로 퍼붓는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추석 이후는 차기 대권을 향한 각 정파와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부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차기 1순위 주자로 확인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움직임이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힌다. 그동안 정치 행보를 자제해오던 박 전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진영 소장파들과 회동한데 이어 친박 의원들을 지역별로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도 각종 특강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피우기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에 구애의 손길을 보내는 등 사실상 대권행보로 해석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계계를 넘나들며 정치력을 과시하는 이재오 특임장관, 예너지를 비축중인 정몽준 전 대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거대 여당을 이끌며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안상수 대표 등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10.3 전당대회를 거처며 세력재편의 계기를 맞는다.

정세균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수성하며 차기주자로 도약할지,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이자 당의 새로운 간관으로 부상하며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여기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진보세력의 연대를 주창하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혼전 양상 치달는 민주 쏠대

당권주자들 “당심은 내편” 신경전 가열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추석 민심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체적인 판세가 혼전 양상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주당의 뒷받침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정동영, 손학규 후보는 “호남 민심은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동영 후보는 “호남 민심은 사당화 논란까지 빛은 민주당 당권과에 대한 심판론이 들끓고 있었다”며 “민주당에 강력한 변화는 호남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공명된 요구였다”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 측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추후했던 정동영 후보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후보도 “광주일보 등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표감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차기 지도부는 관리형이 아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얼굴을 뽑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연휴 기간 영남 지역을 순회했던 정세균 후보는 “통합과 연대를 통해 차기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나 ‘정세균이 적임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박주선 후보는 “민주당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호남 민심인 것은 물론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여론이었다”며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후보도 “민주당의 변화는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며 “합의정부를 위해 앞장서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고 가세했다.

486 단일후보 자격으로 나선 이인영 후보는 “486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지만, 젊고 새로운, 계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보다 진보적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후보도 “당의 변화를 위해 젊은 인사들이 지도부에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특히, 각 당권 주자들은 자체 여론조사 등을 제시하며 확고한 1위를 굳혔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김재균, 고용 의무화 추진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의 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면서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같이 풀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문방위, ‘종이 국감’ 없앤다

피감기관 자료 CD로 제출 요구

해마다 10월이면 국회에는 책이나 서류로 만들어진 인쇄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야말로 ‘서류 공해’다.

하지만 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같은 종이서류가 사라질 전망이다.

문방위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들에게 종이서류가 아닌 CD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PC가 발달되고 각종 자료가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문방위에서만

라도 서면 자료를 없애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몽규 문방위원장은 “업무보고와 같은 기본 자료 외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CD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문방위는 과거에도 국감에 앞서 종이서류 대신 CD 등을 통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정착 실패로 옮겨지는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벽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 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평생구속입니다.

-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주)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SCREEN GOLF**

**두암골프존**

**SEASON EVENT**

2010년 11월30일까지 진행합니다.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 season event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에만 적용합니다.
-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 2010년 12월 01일부터는 정상이금으로 포인트 적립해드립니다.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 ▶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홀
- ▶ 영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 전자식 스윙플레이트
-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 ▶ 윈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두암골프존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원도로쪽 70m [옛날 5층]

**예약 234-9999**